

사회

“수능 대박” 뜨거운 응원 열기

軍警 교통 합동작전·지각 수험생 끝내 입실 못하기도

광주·전남 수능 이모저모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8일 광주·전남지역 수험생에서는 수험생 4만3000여명이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 속에 차분하게 시험을 치렀다.

또 교문 앞에서 기도하는 학부모들은 물론, 교사들과 재학생들 모두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날 각 구청과 경찰, 소방서, 군부대 관계자들도 일제히 시험 지원에 나서 수험생들이 무사히 수능을 마치는 데 한 몫을 했다.

○후배들 응원 열기 '후끈'=광주시 북구 운암동 금호고와 중앙여고를 찾은 수험생들은 후배들의 응원과 선생님들의 격려에 힘을 얻은 듯 환하게 웃으며 시험장으로 향했다.

이날 새벽 4시부터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명당 전쟁'을 벌인 10여

개 학교 재학생들은 'SKY를 달린다', '본능적으로 500', 'Hoot 적중',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엔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등의 재기발랄한 플래카드를 내걸고 열띤 응원전을 벌였다.

○뇌수막염 수험생 수송 지원=금호고에서는 뇌수막염으로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학생이 소방서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장으로 옮겨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기동병원에서 뇌수막염으로 치료 중이던 임기섭(18)군은 광주남부소방서의 도움으로 금호고 양호실에서 시험을 치렀다.

○'합동작전' 한류=광산구 소촌동 정광고 인근은 입실 완료시간인 오전 8시10분까지 광산구 교통지도팀과 육군 31사단 헌병대, 112 순찰차량 등이 교통정리에 합세해 마치

'합동작전'을 방불케 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정광고 인근 도로에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기도 했지만, 이들의 '합동작전' 때문인지 비교적 원활한 차량 소통을 보여 수험생들 대다수가 무사히 고사장까지 갈 수 있었다.

○'고사장 앞 불법주차 '눈살'=광주시 서구 서석고 정문에는 전날 밤부터 불법주차된 차량이 골목길 곳곳을 가로막아 시험장을 찾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다.

또 일부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을 빼달라"는 학교 관리인들의 요청에 못이겨 차를 이동시키면서도 정문에서 겨우 5m 떨어진 곳에 다시 주차한 후 사라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소년원 학생 4명도 수능 치러'=광주시 남구 광주선명학교에서는 고통정보산학교(옛 소년원) 학생 4명이 특별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렀다. 경찰호송차를 타고 선명학교를 찾은

학생 4명은 푸른색 체육복으로 복장을 통일하고, 6명의 교사들과 함께 시험실로 입장했다.

○'소찰차에서도 공부'=고사장을 착각해 이날 오전 8시께 도산파출소 112순찰차를 타고 정광고 정문 앞에 도착한 수험생 김모(19)군은 순찰차 조수석에서도 차분히 오답노트를 꺼내보는 여유를 보여 응원을 나온 후배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길 몰라 헤매다 지각=서석고에서는 오전 8시45분께 한 수험생이 숨을 몰아쉬며 뛰어왔으나 결국은 입실조차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시험 시작 시간인 8시40분을 넘겨 교문에 도착한 이 학생은 "길을 몰라 헤매다 늦었다"며 시험장을 향해 뛰어갔으나 몇 분 후 입없이 교문 밖으로 나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선배님 파이팅” 18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대성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고교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 선배들의 고독점을 바라는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애인들 밤 9시까지 ... 기나긴 수능 시험

광주선명학교 수험생 31명 관계자 도움으로 시험 치러

18일 오후 6시5분, 2011학년도 수능시험이 종료되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큰 해방감을 느끼며 수험장을 나설 무렵에도 남들과 다른 시험지를 들고 밤늦도록 수능 시험을 치른 이들이 있었다. 장애인 수험생들 이야기다.

18일 오전 광주시 남구 광주선명학교에는 31명의 각각 다른 장애학생이 모여들었다. 저시력 10명, 시

각장애 4명, 청각장애 5명, 뇌성마비 3명, 지적장애 7명, 정신지체 2명 등 31명의 장애학생들은 저마다 가족과 관계자의 도움으로 시험장에 입실했다.

점자로 된 시험지로 수능을 치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일반적인 시험 시간보다 매 교시 1.7배의 시간이 더 부여된다. 뇌병변과 저시력을 잃은 학생들에게는 1.5배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

오전 8시40분 전국의 모든 수능 수험생들의 시험이 시작돼 일반학생들은 1교시 언어영역 시험을 80분간 치른 것에 비해, 시각장애 수험생들은 136분동안 시험에 매달렸다. 장애 학생들은 매 교시 시험 시간이 늘어나 밤 9시가 돼야야 시험을 마쳤다.

오전 7시30분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실에 입장한 시각장애 1급 박

재운(여·19)양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수능을 치렀다.

지난해 합격해 다니던 유아교육과보다는 중등교육에 더 관심이 많아서 다시 대학을 가고 싶어서다.

박양의 어머니는 “누구보다 긴 하루를 보내야 하는 딸이 몹시 안쓰러웠다”고 말했다.

시험 감독관인 선명학교 고경민(여·27) 교사는 “몸도 불편한 아이들이 12시간이 넘도록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보며 차라리 내가 시험을 보겠다 싶을 정도로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그래도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화상경마장 재추진 역대 뇌물 마사회 간부 영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강인철)은 18일 순천 화상경마장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마사회 간부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순천 화상경마장 재개장 사업을 추진하던 P사 대표 이모(여·47)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역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월 김씨에게 거

역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중여)로 기소돼 19일 오후 2시 1심 결심판판을 앞두고 있다.

순천화상경마장은 마사회가 지난 2006년 개장을 추진하다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철회했으나, 지난 4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을 재승인함에 따라 재개장 사업이 시작됐다.

검찰은 경마장 재개장 추진 과정에서 마사회와 P사 관계자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과 경마장 사업 승인 시 제출한 주민동의서에 대한 위조 의혹 등이 일자 수사에 착수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6·25 전사 광양출신 국군 김우근 하사

유해 발굴 가족 품으로

6·25 전쟁 때 전사했으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광양 출신 김우근(20·이해 전사 당시 나이)하사 등 국군용사 3인의 유해가 발굴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18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국군은 김 하사를 비롯해 3사단 소속 류수열 일병, 9사단 소속 김선만 이등중사로 모두 인식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하사의 유해는 지난 9월 중순 양구에서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식한 인식표, 약병, 칫솔 등과 함께 발굴됐다. 그는 1951년 8월 피의능선 전투에서 전사했다.

올해 7월 말 강원도 인제 무명 1058 고지에서 발굴된 류 일병(23)은 1950

년 10월1일 최초 38선 돌파라는 감각이 체 가지지 않은 10월2일 원산직격작전 중 전사했다. 지난날 초 강릉에서 인식표, 가위, 손가락 등과 함께 발굴된 9사단 소속 김선만(25) 이등중사는 1951년 3월 강릉 송계리 일대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하사는 동생 김운근(69·광양 거주), 류 일병은 여동생 류말술(78·부산), 김 이등중사는 여동생 김숙희(77·경남 통영) 할머니가 각각 유가족으로 식별됐으며 DNA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형제관계임이 밝혀졌다.

합동안장식은 유가족과의 협의에 따라 이달 중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무등산 전망대 부근 산불 0.1ha 태워

'수능' 헬기 못떠 진화 늦어

18일 낮 12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무등산 전망대 부근에서 불이나 얼마 0.1ha를 태우고 1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산불이 발생하자 소방차 7대와 구청 공무원 등 70여 명이 긴급출동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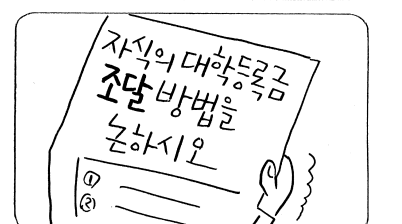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대학수능능력시험 외곽에 영역 듣기·말하기 평가로 인해 20분 동안 소방헬기가 4수리지 인근에 대기해 진화시간이 다소 길어졌다. 산림당국은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여성 ROTC 체력시험

18일 오후 전남대 학군단 훈련장에서 여성 ROTC 체력시험에 응시한 한 학생이 안간힘을 쓰며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여성 ROTC에 지원한 60명 중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8명이 이날 2차 체력시험을 치렀으며, 최종 5명을 뽑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원침 (8174) 김장두



강인형 순창군수 재소환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하고 지역 이장들에게 선심성 공사권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인형 순창군수를 재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17일 오후 6시에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자정께 귀가했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14일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날에는 강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수의계약으로 순창군 발주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20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으나 정확한 조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흡진 차 타다 교통사고 '달미'

○수십 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이던 30대가 흡진 차를 타고 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가 '달미'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9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21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난 9일 밤 9시30분께 동구 학동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레조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1시간 뒤인 밤 10시 40분께 서구 삼부지구에서 접촉사고를 내 모든 범행 사실이 들렸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SINCE 1982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본 점 (062) 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